

“경기 나서지 못해 아쉬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시기 있을 것”

축구 국가대표팀 이강인, SNS 통해 소감 전해

“함성 큰 감동...성원에 걸맞는 선수 되도록 노력”

축구 국가대표팀의 이강인이 27일 카메룬과의 국가대표 A매치 평가전이 끝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에 나서지 못해 아쉽지만 언젠가 팬들 앞에서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시기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경기장에서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큰 감동 받았습니다”라며 “그 함

성과 성원에 걸맞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강인은 1년 6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23일 코스타리카, 27일 카메룬전에 출전하지 못한 채 벤치에서 대기했다.

카메룬전을 찾은 팬들은 벤치에 대기하는 이강인이 전광판에 잡힐 때마다 크게 반응했고, 교체 타이밍에는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을 보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출전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경기 중 팀에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했다. 다른 옵션을 선택하기로 했다. 전술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강인을 연호하는 관중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질문에는 “귀가 2개라 듣지 않을 수 없다. 잘 들었다”고 답했다.

9월 A매치는 월드컵 최종 엔트리 확정 전 유럽파를 포함한 최종예선이 끝나는 마지막 테스트 무대였지만 이강인은 두 경기에 모두 결정해 카타르행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소프트테니스 대회 성료

순천팔마경기장서 열려...3년 만에 재개·약 500여명 참가

전남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김태성)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남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개최된 “2022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성공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의 생활체육동호인 2만여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체육축제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열리지 않았고 올해 3년 만에 재개된 대회여서 더욱 더 열기가 뜨거웠다.

2022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소프트테니스 대회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500여명이 출전해 남녀 30대 이하부, 40대부, 50대부, 일반부와 60대부, 70대부, 80대 이상부의 어르신부 및 혼성부까지 총 11개부에서 실력을 겨루며 그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생활체육 대회의 대한 감동을 해소했다.

전남소프트테니스협회는 생활체육 동호인

의 축제를 다시한번 신명나게 만들기 위해 대한체육회 기금을 지원받고, 개최지 순천시와 정인선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장의 지원을 통해 여경경기장 깜짝노래자랑, 포토존, 목표물 맞추기 게임, 캐리커처 이벤트 등 경기의 10가지의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며 동호인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김태성 전남소프트테니스협회장은 “소프트테니스는 남녀노소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종목이다”라며 “그동안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대회와 소통의 장이 부족했던 우리 동호인들이 마음껏 갈고닦을 기량 펼치고 전국의 동호인들과의 소통과 화합, 친목을 다진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저녁 순천에코그라드호텔 컨벤션홀에서 대회식과 제27대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장 정인선 회장 취임식을 겸해 진행됐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두산 베어스 ‘영원한 캡틴’ 오재원 은퇴 선언

최종전 10월8일 키움전서 은퇴식...“영원한 두산팬으로 살겠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사장 전종)의 ‘영원한 캡틴’ 오재원(37)이 그라운드를 떠난다.

오재원은 올 시즌을 끝으로 16년간 정들었던 프로 유니폼을 벗기로 했다. 구단은 오재원의 뜻을 존중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탑고-경희대 출신 오재원은 2007년 두산에 입단해 올해까지 16년간 ‘원 클럽맨’으로 활약했다.

통산 1570경기에 출장해 타율 0.267, 64홈런, 521타점, 678득점을 기록했으며 넓은 수비 범위와 넘치는 승부욕, 탁월한 야구 센스로 훌륭한 명장면을 연출한 바 있다.

오재원은 두산의 세 차례 우승(2015~2016, 2019)에 기여했으며, 특히 2015년과 2019년 우승 당시엔 주장으로 팀을 이끌며 리더십을 뽐냈다.

두산에서는 물론 태극마크를 달고도 훌륭한 명장면을 만들었다.

오재원은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2015프리미어12 우승에 앞장섰으며, 프리미어12 한일전 당시의 ‘베트 플립’은 여전히 많은 팬들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다.

오재원의 은퇴식은 시즌 최종전인 10월8일 키움 히어로즈전에 앞서 진행된다. 선수단은 경기 전 오재원 은퇴 기념 티셔츠를 착용하며,



구단은 은퇴기념 사진 및 유니폼 액자, 꽃다발을 전달한다. 또한 오재원의 16년 프로생활이 정리된 영상을 상영한 뒤 오재원이 직접 은퇴사를 발표 예정이었다.

오재원은 “은퇴를 결심하니 여러 순간들이 떠오른다. 기쁜 장면, 아쉬운 장면 모두 팬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셨던 ‘최강 10번타자’ 두산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주신 박정원 회장님 이하 두산 베어스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작을 두산 팬들과 함께 하고 싶다. 팀을 떠나도 끝까지 후배들을 위해 노력하며 ‘영원한 두산팬’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벤투호, 11월12일께 카타르월드컵 최종 명단 26명 발표

11월 출정식 겸한 국내 평가전 이후 월드컵 최종 명단 공개

유럽파를 포함한 최종예선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한 사실상의 마지막 테스트를 마친 벤투호가 오는 11월 월드컵 본선에 나설 최종 엔트리를 확정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카메룬과의 평가전에서 전반 35분에 터진 손흥민(토트넘)의 헤딩 결승골로 1-0 승리했다.

지난 23일 코스타리카와 2-2로 비긴 한국은 9월 A매치 2경기를 1승1무로 마쳤다.

이번 두 차례 평가전은 11월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에 앞서 유럽파를 망라한 최종예선로 치른 마지막 시험무대였다.

최종 엔트리 윤곽이 드러났고, 정우영(프라이부르크)과 손준호(산둥타이산)가 중용되면서 세 진출도 재확인했다.

카타르월드컵 개막을 2개월 남겨둔 벤투호는 11월 국내에서 출정식을 겸한 평가전을 한 차례 더 치른 뒤 월드컵 본선에 나설 최종 엔트리 26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팀은

최종 명단 발표 전 국내에서 유럽 팀과 한 차례 평가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 팀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과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일정도 겹쳐 평가전 성사가 어려웠다.

다만 이번엔 A매치 기간이 아닌데다 국내에서 평가전이 열려 월드컵 본선 진출팀에 준하는 수준의 상대를 고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벤투호도 이때는 A매치 기간이 아니라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황의조, 황인범(이상 올림피아코스), 김민재(나폴리) 등 유럽파 차출이 어렵다.

그로 인해 사실상 국내와 위주로 대표팀이 꾸려질 것으로 보이며, K리그들은 정규리그가 끝난 뒤 10월31일 소집된다.

그동안 꾸준히 벤투호에 이름을 올린 나상호(서울), 권창훈(김천), 김진수, 김문환(이상 전북), 김영권, 김태환, 조현우(이상 울산) 등이 가세할 전망이다.

출정식을 겸한 국내 평가전은 11월11일이 유력하다. 유럽파가 올 수 없어 지난 7월 동아

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이후 마지막으로 국내파를 최종 점검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9월 A매치 모의고사를 끝으로 사실상 최종 엔트리 윤곽이 드러나 부상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최종 엔트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출정식을 마친 뒤에는 11월12일 또는 13일 카타르월드컵 본선에 나설 최종 엔트리 26명이 공개된다.

그리고 대표팀은 11월14일 결선지인 카타르로 이동할 예정이다. 유럽파들은 현지에서 바로 대표팀에 합류한다.

베이스캠프가 차려질 카타르 도하에선 평가전 없이 훈련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은 카타르월드컵에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H조에서 경쟁한다.

11월24일 우루과이와 본선 포벼리코 첫 경기를 치른 뒤 가나(11월28일), 포르투갈(12월 3일)과 차례대로 붙는다. 세 경기 모두 에두에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뉴스스

‘전체 1순위’ 리드, 페퍼저축은행 합류... “충분히 준비 됐다”

김형실 감독 “호쾌한 점프력에 공격 다양성 갖춰”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새 외국인 선수 니아 리드(25)가 한국땅을 밟았다. 페퍼저축은행은 “리드가 27일 오후 늦게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28일 밝혔다.

리드는 지난 4월 2022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부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페퍼저축은행의 부름을 받았다.

키 189cm의 리드는 2021-2022시즌 브라질리그 세시 볼레이 바우르에서 뛰며 득점 1위를 기록했고, 올해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와 판 아메리칸컵에 각각 미국 국가대표로 참가했다.

리드는 드래프트 이후 미국 국가대표 경

기 일정을 소화하고 대표팀 마무리 훈련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리드는 “여기 오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마침내 한국에 오게 돼 매우 기쁘다. 빨리 팀원들과 코칭스태프들을 만나고 싶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여름 내내 운동하고 훈련해 충분히 준비된 상태라고 느껴진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100%로 최선을 다해 시즌을 준비하겠다. 열린 마인드로, 흔쾌히 경쟁과 발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형실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고대하던 리드의 입국을 마음으로 환영한다. 리드는 호쾌한 점프력에 공격의 다양성이 돋보이고, 블로킹 또한 공격적이다. 브라질 리그 득



점함을 통해 이를 증명했고, 미국 국가대표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한 모습을 기대한다. 구단 합류 시점이 늦어졌지만 훈련시간을 극대화해 기존 선수들과 점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할푼리모’까지 같은 타율 1·2위...타격왕 경쟁 ‘활활’

타율 1위 박건우-2위 이정후, 불과 ‘1사’ 차이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타격왕 경쟁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박건우(32·NC 다이노스)가 이정후(24·키움 히어로즈)를 단 1사 차이로 제치고 타율 1위에 오른 가운데 호세 피렐라(33·삼성 라이온즈)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쫓고 있다.

지난달까지 타격왕 경쟁은 이정후와 피렐라의 2파전 양상이었다.

그러나 6월 초 허벅지 부상으로 한 달 가까이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가 7월 12일 1군에 복귀한 박건우가 이달 8일 규정타석을 채우면서 경쟁 구도가 ‘3파전’으로 바뀌었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피렐라와 박건우, 이정

후가 번갈아 타율 1위에 올랐다.

21일까지는 피렐라가 타율 1위였지만, 22일 KIA 타이거즈전에서 4타수 2안타를 날린 박건우가 타율 1위로 올라섰다.

23일에는 이정후가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4타수 4안타를 날리면서 선두 자리를 꿰찼다. 이정후가 26일까지 1위를 지켰지만, 27일 경기가 끝난 뒤 순위가 또 바뀌었다.

박건우는 27일 창원 키움전에서 5타수 4안타로 불꽃타를 선보여 타율 1위를 탈환했다. 26일까지 타율 0.348로 선두를 달리던 이정후는 5타수 1안타를 치면서 2위로 밀렸다.

박건우와 이정후의 타율은 ‘할푼리모’까지

같다. 박건우가 0.34645로 1위고, 이정후가 0.34644로 2위다. 타율 0.342인 피렐라가 이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그리고 최정삼급 콘택트 능력을 자랑하는 박건우는 아직 개인 타이틀을 거머쥘 적이 없다. 2017년 0.366의 고타율을 기록했지만, 그해 타격 1위 김선빈(KIA·0.370)에 4리 차로 밀려 2위에 만족해야 했다. 박건우는 첫 개인 타이틀 획득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해 타율 0.360으로 타격왕에 오른 이정후는 올 시즌 2년 연속 타격왕 뿐 아니라 타점(108점), 최다 안타(185개), 출루율(0.418), 장타율(0.573)에서 선두 싸움을 벌이며 다관왕을 노리고 있다.

피렐라는 2015년 NC 다이노스의 에릭 테임즈 이후 7년 만에 외국인 타자 타격왕 등극을 정조준한다.

뉴스스